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5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메라 남 수자타 해 | 권도영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민다나오에서의 일 년 | 김진진
- 12 **쫄리읍쑤어, 캄보디아**
학교는 소수 부족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새로운 역사이다 | 김재령
- 16 **밍글라바, 미얀마**
땀집았어! | 권민성
- 20 **싸바이디, 라오스**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 배해정



국내소식

- 24 **함께 나누는 사랑**
1+1 기부졸업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배워요!
- 25 **함께하는 사람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 박용대, 박영일



활동터소식

- 28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 해외 파견 자원활동가
- 33 **2013년 JTS 기금사용 결과보고**
- 34 **후원인의 소리**
- 35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4. 3. 17 퍼낸이 법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퍼넨터 JTS
도운이 최양희, 윤미옥, 이미경, 최기진, 윤재승, 신인환, 박용대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or.kr 홈페이지 www.jts.or.kr

/ 여는 글

아직 추위가 채 물러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봄의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JTS도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2014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는 20주년 개교기념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입을 잠시 빌어, 길에서 구걸하던 동게스와리 아이들이 어엿한 대학생, 선생님, 경찰관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웨스트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지진피해 복구사업으로 시작한 인도네시아 사업을 마무리한 활동가들은, 당장 도움의 손길이 급한 필리핀 레이테섬 마라봇 지역의 태풍피해 조기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5개 마을학교 건축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문구류와 책가방을 마련해준 활동가들이 준공식을 마치기 바쁘게 라오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제법 사업장의 틀이 갖춰진 라오스 JTS에서는 곡농부아 마을학교 건축이 한창입니다. 이제 두 명의 활동가가 더 파견되는 만큼, 한층 더 활발한 사업이 기대됩니다.

새 식구들을 맞이한 미얀마 JTS에서는 무려 6개 마을이 모이는 운동회를 지원했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준비해 맞이한 운동회에서 느낀 생생한 감동을 역동적인 사진과 함께 권민성 활동가가 전해왔습니다.

JTS 사업장의 소식들과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부



메라남 수자타 해 (제 이름은 수자타입니다.)
- 수자타 아카데미 20주년, 감사한 얼굴, 새로운 시작

제가 태어난 이곳은 '동게스와리'입니다. 이곳은 커다란 돌산을 둘러 볼가족 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척박하고, 메마르며,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던 곳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권도영 활동가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온종일 돌을 깨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하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을만한 땅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단지 스치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볼가족천민의 마을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정성,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여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이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정성, 함께하려는 마음이 모여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구걸을 하고 있나?” 하는 작은 물음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마을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첫 번째 변화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의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정해진 카스트의 일을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생활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사람들을 위해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인도의 다른 지방에서 고마운 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땅을 기증했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주인이 되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공사를 시작하며 마을 아이들은 학교 공사장 옆 나무아래 모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모르고 글도 모르던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한 실력으로 오전에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의 동생, 그리고 내 동생들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다시 또 해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유치원 아이들과 신나게 공부하고, 오후에는 열심히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곳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었고, 제가 벌써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쉬람단(공동작업)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도 만들고 마을에 도로도 닦았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쉬람단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상처도 치료하고 영양식도 제공했습니다.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일하다보니 어느새 우리 마을은 “함께레게(제가 하겠습니다)”를 외치는 등게스와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스무 번째 생일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은 지금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이들의 멋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능률한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의 스무 번째 생일을 위해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 인도인 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활동가가 하나 되어 지난 20년간의 사랑에 감사하며 20주년 개교기념식을 준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 오르는 일이 수줍기도 하고, 공연연습으로 집에 늦게 가는 일도 있었지만 감사한 분들을 위해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요.

이번 개교기념식에서 우리 친구들은 전통춤 ‘카탁’을 추었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춤 선생님도 오셨기에, 어려운 춤이지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떼라~쩌오다~뵘드라~쏠라~ 투키투키 투~”

작년행사에서 많은 박수를 받았던 ‘봄봄볼레’도 준비하였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자연스러운 안무로 즐거운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스리 가네쉬(코끼리 얼굴의 인도 전통신)’ 공연도 준비하였습니다. 인도 특유의 웅장한 음악에 맞춰 가네쉬 신을 모시고 춤을 추었습니다. 가네쉬 역할을 맡은 친구가 준비된 가마에 잘 오르지 못해 가마를 바꾸기도 했고, 가네쉬 가면을 쓰고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엉뚱한 방향으로 춤을 추어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로빈 후드 댄스 공연은 멋진 경찰복장과 머리에 무스를 바른 춤동작, 옷깃을 세우는 춤동작은 재밌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공연은 그동안의 멋진 공연에 1,2학년 친구들과 여학생들의 귀여운 호신술을 함께하여 “보훗 아차(아주 멋진)”한 공연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공연 연습장은 1,2학년 친구들의 귀여운 동작과 엉뚱한 발차기 덕분에 연습하는 내내 웃음바다였습니다. 먼저 태권도를 배운 형들에게, 태권도 선생님과 인도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교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며 즐겁게 연습했습니다. 처음으로 여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무대에 올라 솜씨를 뽐내



인도 전통춤을 준비한 여학생들

‘스리 가네쉬’ 공연중인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



“수자타 아카데미 우리들의 꿈, 배움의 기쁨이 넘쳐나는 곳, 착하고 성실한 나의 친구들, 커다란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어 더 의미 있는 공연 이였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면서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을 하고 또 안무를 수정하여 연습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특별한 간식도 먹으며 즐겁게 했습니다.

제 생일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법륜 이사장님과 수자타 아카데미 역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 하였던 한국인 활동가분들, 언제나 함께한 마을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감사한 얼굴들을 위해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꽃목걸이도 목에 걸어드리고 학교에 반짝이는 별도 만들어 장식했습니다. 새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과 더 즐겁게 세 번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우리들의 꿈, 배움의 기쁨이 넘쳐나는 곳, 착하고 성실한 나의 친구들, 커다란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민다나오에서의 일 년



수자타아카데미 남·여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수자타아카데미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손님들

작년 3월 1일 막 필리핀에 도착하여 마닐라 정토회 및 한인 분들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한 분이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다. 앞으로 고생할 텐데 관찮겠냐는 염려 섞인 농담이었을 것이다. 비록 일 년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한국에 돌아가니, 마닐라에서 만나면 “저 이제 갑니다.”하고 말씀드려야겠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김진진 활동가

지난 일 년을 돌아보니 민다나오에서의 일과 생활은 그리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일이 별로 없어 서일까? 일반 봉사자 신분으로 국제구호나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 정해진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또 설사 아는 게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으니 실제로 실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학교 건축과 교육 지원 업무를 맡게 되어, 여러 마을과 학교를 방문하고 때로 오래 머물며 이곳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건축을 하며 만난 킬라올라오, 아폴란 마을 아줌마 아저씨들, 수원지를 점검하고 아이들과 손잡고 돌아오던 해질녘에 아이들이 만들어 준 꽃다발, 문구류 지원 차 갔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깊어갔던 밤, 학교 건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준공식하던 날 너무 기뻐서 내내 꼭 껴안고 함께 기뻐하던 주민들, 선생님들... 일일이 적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잘 놀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필리핀으로 파견되기 전 일 년 동안 한국JTS 본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교육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국제개발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고 잘 와 닿지 않는 것도 있었다. 예를 들면 '물'과 같은 이슈가 그러하다.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곳에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는 게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다. 심지어 '왜 물이 없는 곳에 사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직접 마을에 가보니 아주 허접한 의구심이 있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에 산다. 그리고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물을 구하려면 계곡으로, 냇가로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야 한다. 또 내려갈 때는 빈 통이지만 올라갈 때는 물을 가득 채우니 무겁

다. 온 가족이 하루 세 끼 밥 해먹고 마실 물만 해도 보통 양이 아니다. 그러니 마을만 가면 '워터파이프(Water Pipe)' 지원해달라는 말이 나온다. 당연한 일이다.

파견 직전 이사장님을 뵈 기회가 있었다. 그때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가는 것이지 문명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무엇보다 와 닿았다.

그래서 내 얕은 주관으로 쉽게 이곳의 사람들과 삶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한국과의 '다름'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으려고 했다. 그게 얼마나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편했다는 것뿐이다. 물론 운 좋게도 함께 일했던 현지인들이 다들 협력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기도 했다.

함께 일했던 코디네이터 제시가, 시장님이,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랬다. 바쁜 농사철에, 라마단 금식 기간에, 무보수 자원봉사로 학교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일로 열심히 일했다. 준공식을 앞두고 학교 건축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을 때, 전기가 없는 우리 마을을 위해 나도 모르게 시장님은 발전기를 빌려주고 제시는 헤드랜턴을 빌려주어 주민들이 밤에도 일할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정규 학기 시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교가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마을에 몇 번 가서 사람들과 먹고 자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노는 게 전부였다. 이사장님께서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할 때 배우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배운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또한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십여 년

간 필리핀JTS가 쌓아온 성과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JTS가 지원한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이사장 법륜스님,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과 마닐라 정토회 및 한인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필리핀JTS에서 활동했던 최정연, 최기진, 윤영실, 송현자, 배명숙, 김태훈, 송지홍, 이재곤, 임선호 등 선배활동가들의 열정과 노고가 축적되어 지금의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겨우 일 년을 마치고 돌아가는 지금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처음에 해외봉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사실 큰 이유는 없었다. 봉사라는 말도 낯간지러워서 좋아하지 않았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생각이었다. 좀 더 거창하게 꾸며 말하면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현지인들을 만나 이해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홍보 문구 같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정 많은 이곳 사람들을 만나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저 보면 반가워서 서로 자기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하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정 어린 마음을 받고 살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다. 동시에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혼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적도 생김새도 말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다시 친구가 되며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땐 자기 이름만 겨우 쓰던 아이가 이제와 쪽지에 'Good bye, Thank you, Atte(현지어로 언니라는 뜻)'이라고 써서 주니 애써 무디려는 마음이 간질간질하다. 마지막 학부모 회의 때 아이들에게는 결석 좀 하지 말고 학교 졸업 꼭 하라고, 주민들과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텃밭이랑 펜스랑 가끔은 말하지 않은 것까지, JTS가 하자는 대로 같이 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냥 이 사람들이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한국이랑 필리핀은 왜 이렇게 먼가.

여기 있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정신 차리고 빨

리 돌아오라고 할 때마다 나도 마음이 풀죽기도 했다. 친구들은 당연하고 이제는 후배들도 각자 사회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소위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나이 서른 다 되어 직장도 남자친구도 없이 여기서 이려고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객관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평행우주가 있다면 다른 우주의 나는 정해진 길로 벌써 이만큼 갔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으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는 여기 잠깐 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빈곤과 분쟁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이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영혼으로 사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끔 마음이 지칠 때마다 '지금 나는 어떤 영혼인가' 생각해본다. 이곳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새 학교에서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에게 새 학용품을 나눠주며

학교는 소수 부족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새로운 역사이다.

지난 1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캄보디아 동북부 산악지역의 소수 부족이 사는 5개 마을에서 초등학교 준공식이 있었다. 가난한 캄보디아 내에서도 소수자로 살아가는 소수 부족에게 초등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부족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새로운 역사이다.

함께하고 글쓴이 캄보디아 JTS - 김재령 활동가

다리 보수를 마친 인마을 주민들



학교 기공식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역사에 첫 삽을 뜨다.



가난하게 사는 캄보디아 소수 부족들 캄보디아 내의 소수 부족들은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조그만 혜택도 가장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아서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대체로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마을 사람들 5개 마을 중에서 강 건너에 있는 웅찬 마을은 큰 강이 있어서 우기 철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다. 아이들의 부모인 소수 부족 마을 사람 중에 학교를 다녀서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이 제때 배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어른 중에 한 분이 캄보디아 교육청과 여러 단체에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가난하고 작은 웅찬 마을에 학교를 지어준다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이 어른은 아이들에게 학교를 주고픈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때마침 JTS를 만나서 학교를 하나 짓게 되었다.

그리고 인 마을 주민들은 베트남에서 넘어온 산악 부족인데 바로 옆에 라오스에서 넘어온 부족이 사는 마을이 있다. 라오스에서 넘어온 부족들이 사는 마을은 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제법 크고 사람도 많이 산다. 인 마을 아이들은 처음에 이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서로 부족이 다르다보니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숫자가 적은 인 마을 아이들은 점점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급기야 인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놀거나 어린아이들이 다니기에 너무 멀리 떨어진 학교를 힘겹게 다니게 되었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한 사람의 크나큰 절실함이 마을을 변화시키다 우리가 살다보면 생각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 마을 주민들도 생각으로는 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난한 살림에 농사일을 제쳐두고 힘든 학교 건축을 하다 보니 하나둘 학교 짓는 현장에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JTS에 학교를 요청했던 웅찬 마을의 어른은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이 제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주민들이 하나둘 학교 짓는 현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건축 자재들을 조그만 조각배로 일일이 저 날랐다. 학교를 주민들 손으로 짓는 것도 힘겨운 일인데 조각배로 자재를 일일이 저 나르는 것은 학교에 대한 절실함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인 마을은 학교 기공식을 하고 나서 계속 비가 내렸다. 학교를 지을 자재를 실은 트럭이 진흙에 빠지는 것은 예삿일이고, 아예 마을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학교 짓는 것을 제쳐두고 진흙길과 마을로 오는 다리를 보수하는데 기진맥진했다. 이렇게 되다보니 정녕 학교를 건축할 때, 주민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다. 이장님은

강 건너 웅찬 마을 학교 준공식



새 학용품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주민 회의를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학교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장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학교 건축에 안 나오던 주민들이 하나둘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절실함이 허허벌판에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이 되다. 웅찬 마을 주민들이 퇴약벌에서 땀을 흘리는 만큼 학교는 점점 뼈대를 갖추고 그 위용을 조금씩 드러냈다.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주민들의 흠이 묻은 손으로 벽들이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벅찬 감동이었다.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주민들이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이 세상 그 어떤 감동적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다. 인 마을 학교에 벽이 올라가고 빨간 지붕이 완성되니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이 가난한 소수 부족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이 폭풍과 비바람에도 끄덕없겠구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소수 부족 마을 주민들이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는데 허허벌판에 자기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당당하게 물려준 것이다.

소수 부족에게 학교는 새로운 역사의 토대이다 마을 주민들은 학교를 안 다녀도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서 나무를 베고 화전을 일구어서 가난하지만 그들의 조상이 살던 대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국가와 큰 회사들이 이들의 삶의 터전에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소수 부족 주민들의 터전은 점점 좁아지더니 이전 마음대로 나무도 못 베고 화전도 함부로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들은 점점 섬이 되어가

고 이들의 삶은 더 이상 조상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학교가 필요해졌고, 새로운 삶을 요구받게 되었다. 주민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아도 삶에 큰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오롯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만들어갈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의 토대가 될 학교가 만들어졌다.

소수 부족 주민들은 ‘정말로 강한 부모님들이다!’ 학교가 다 지어지자 주민들은 잔치를 스스로 열었다. 얼마나 뿌듯하겠는가? 솔한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내고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 솔한 힘겨움을 이겨내고 주민들 손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었다. 나는 주민들을 보면서 ‘정말로 강한 부모님들이다.’라는 생각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끓어올랐다.

“학교 짓는 게 힘든데 왜, 학교를 지었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 지으니 행복해?”

“그럼요. 행복합니다.”

주민들은 진정 행복해 보였다. 주민들의 얽은 미소와 환한 웃음에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도 미소를 짓고 마을의 새로운 역사도 활짝 웃는다.

운동회 우승 마을 주민들과 함께



땡잡았어!

- 탄터빈 운동회를 다녀와서

지난 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미얀마 탄터빈 마을에서는 JTS 주최로 근처 6개 마을 주민이 참여한 큰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못지않게 마을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운동회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미얀마 JTS의 활동가가 현장의 열기를 전해왔습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미얀마 JTS - 권민성 활동가

탄터빈 운동회 전날인 1월 10일 새벽3시 30분. 요가매트에서 구부정하게 누워있던 김성현 활동가가 일어났다. 김성현 활동가는 금시열 활동가와 나에게 “잘 잤니?”라며 인사를 건넨 후 아래층 사무실로 내려간다. 우리에게 매트리스를 양보하고 요가매트에서 자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장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김성현 활동가다. 그 전에 내가 만원도 안 하는 매트리스 하나 더 사자고 건의 했을 때에도, “괜찮아, 앞으로 3~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하나 더 사는 건 낭비야.”라며 활동가의 검소함을 강조하는 그였다.

새벽4시, 1층에서 이모아 활동가가 “물통 챙겨가, 도중에 목말라서 물을 사먹는 것 보다 미리 챙겨가는 게 좋잖아.”라며 물병을 챙겨준다. 그렇게 준비물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운동회에 필요한 짐 목록을 검토한 다음 숙소를 나선다.

밖은 아직 어두워서 발길을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활동가들은 불평한마디 없이 택시를 타러 15분가량 걸어간다. 우리가 가는 흘라잉다야 버스터미널은 숙소에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새벽이라 다니는 버스도 없고, 버스를 타더라도 2시간 넘게 돌아가야 하는 곳이라 부득이하게 직선코스로 가는 택시를 이용한다. 6명분의 택시비 흥정을 위해 현지인 매니저 수수와 김성현 활동가가 15분가량 택시기사들과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싼 가격에 택시 흥정에 성공하자 우리는 앞좌석과 뒷좌석, 트렁크에 용기종기 모여타고 한 시간 가량 이동한다.

그렇게 도착한 흘라잉다야 버스터미널은 새벽의 차가운 날씨, 어두컴컴한 조명, 그 조명 사이로 훑날리는 수많은 먼지와 가만장사치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우리가 가는 짜웅공시(市) 탄터빈면(面)으로 가는 유일한 ‘무지개다리’치고는 너무 분주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랄까?

현지인 매니저 수수가 버스터미널에서 표를 사고 (안 그러면 바가지 등의 위험이 있다) 아침밥을 먹으러 가면, 모두가 한 가지 메뉴로 통일한다. 그 메뉴는 라페타밍(녹차 밥)! 사실 기름에 녹차를 우려낸 차 찌꺼기와 콩 튀긴 것, 밥과 계란 후라이가 전부인 보잘 것 없는 메뉴인데, 가끔씩 토마토라도 올라가면 정말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된다.

그렇게 든든히 배를 채우고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배로 갈아타고 1시간을 더 들어가면, 어릴 적 이슬 우화에서나 들어봤을 만한 ‘무지개다리 끝의 보물 상자’ 같은 탄터빈 마을이 나온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는 마음씨 고운 주민들, 그 중에서도 남자 활동가들을 아들처럼 여겨주는 탄터빈의 큰 엄마 ‘더우 윈 산’씨가 우리를 맞아 준다. 탄터빈 이장님의 부인이신 ‘더우 크마 초우’ 여사도 점심식사 준비를 하다가 급하게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운동회에 필요한 짐과 상품을 활동가들과 함께 나른 후, 마을 운동회 위원회와 주민대표들과 함께 다음 날 있을 운동회에 대해 이

5인 1조 대나무 오르기



마을대항 2인3각 어린이 달리기



마을 대항 축구시합을 응원중인 주민들



아기를 나눈다. 회의가 끝나고 운동회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인 마을 중앙으로 나갔는데, 6개의 마을을 대표하는 각 팀 대표들의 강렬한 눈빛과 진지한 모습이 평소 화기애애한 주민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특히 단체 줄넘기, 대나무 오르기, 축구, 보트레이싱은 사전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체종목들이었기에 참여하는 모습이 남달랐다.

JTS의 남자 활동가들이 “대나무 오르기에 도전해 볼까?”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이카잉, 수수 활동가가 동시에 콧방귀를 킨다. 대나무 오르기가 강인한 체력과 민첩성을 요구하는 종목인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대나무 꼭대기에 기름까지 발라줘서 JTS 남자 활동가들이 멋모르고 지원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경기였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음 날 필요한 머리띠와 보트레이싱 티셔츠 등을 준비해 놓고 잡자리에 든다.

다음 날 4시 30분. 일어나자마자 경기장 입구에서 머리띠를 나눠주며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운동회 종목은 감자주워 달리기, 남·녀 보트레이싱, 대나무 오르기, 배게 싸움, 축구, 족구, 바구니고 달리기, 남자 달리기, 2인3각, 쟁반이고 달리기 등 총 11개의 종목이었고, 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서 열렸다.

어디서든 경기를 하다 보면 준비가 미비한 점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탄터빈 마을의 경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경운기로 발전을 하는데 경운기 엔진이 과열돼서 경운기를 교체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줄넘기 심판이 줄넘기 횟수 세는 부분을 실수하여 재경기를 치루는 등,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보트레이싱 경기에서 6개 마을 주민들이 강을 에워싸고 응원하던 엄청난 참여, 밤새 줄넘기를 하며 연습한 노력, 시상식에 불빛이 필요하자 자신의 오토바이를 끌고와 불빛을 밝혀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 젊은이들의 자발성 등, 미비했던 점을 덮고도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약 2주간의 운동회 준비기간과 2박3일에 걸친 결코 길지 않은 운동회 기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 젊은이들의 땀과 노력, 어머니들의 따뜻한 인심, 아버님들의 든든한 지원에 미얀마 JTS 활동가들의 노력과 아쿠아랜드 한윤복씨와 미얀마 하이틴로 유통 김진동씨의 따뜻한 기부가 더해져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운동회 시상식이 끝나고 주민들이 하는 샤워 방법으로 다들 강가에서 샤워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남자들끼리 모여 론지(미얀마 전통복장)를 입고 그냥 강에 뛰어 들어 씻는 게 나중에 가서는 더 편하고 재밌었다. 그냥 비누칠만 하고 강에 뛰어들면 되는데, 마을 이장님은 우리가 샤워를 끝마칠 때까지 근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 혹시라도 우리가 강물에 휩쓸려 갈까봐서 끝까지 지켜보셨던 것이다. 샤워 후 다 같이 잠을 청하는데, 다음 날이면 다시 미얀마 JTS 사무실이 있는 양곤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섭섭해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업장에서의 일이 끝나고 짜웅공에서 흘러 잉다야를 거쳐 미얀마 JTS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은 고될 뿐만 아니라, 밤 9시가 넘도록 늦어서 버스가 끊기는 일이 다반사라 시내까지만 버스를 타고, 시내에서 사무실까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하는 날은 피로가 몸에 계속 쌓이는데, 특히 오토바이를 2시간 넘게 타고 돌아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골반이 찌릿할 정도로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 운동회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은 9시가 넘지 않아 JTS 사무실 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는 버스가 한 대 흘러잉다야 터미널로 오고 있었다. 직행도 아니고 도중에 환승해서 가야 가는 버스타. 버스를 본 김성현 활동가가 “야, 땡잡았어! 300꺃(약 300원)짜리 버스타!” 하고 소리친다. 누구에게 땡잡았다고 하는 걸까? 소중한 돈으로 JTS의 사업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과 사업장 마을의 주민들이 이 활동가와 함께 일했던 지난 2년 동안 땡잡은 게 아닐까?

내가 바로 탄터빈 마을 폭주족!



강을 에워싸고 보트레이싱을 응원중인 주민들



미얀마어로 연설중인 김성현 활동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추위를 달래는 아이들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 새내기 활동가의 라오스 적응기

12월로 접어들며, 무더위만 있는 줄 알았던 라오스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지만 아침과 밤에는 두꺼운 겉옷에 담요까지 찾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려오면 곳곳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저녁식사를 일찍 마친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호호 손을 비비며 앉아있으면 어느새 옆집 할머니, 앞집 아주머니, 뒷집 꼬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삼오오 불 앞으로 모여듭니다. 특별한 애깃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누군가 가져오는 옥수수 한두 개 외엔 특별히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함께 온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배혜정 활동가



라오스는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입니다. 동쪽으로 베트남과 서쪽으로 태국, 위로는 미얀마와 중국, 아래로는 캄보디아와 이웃하고 있지요. 이곳에는 어머니강(매남콩)이라고 불리는 메콩강이 전 국토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흐르고 있고, 한반도보다 조금 더 넓은 국토에 인구는 서울 인구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 남아있어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지상낙원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UN이 지정한 세계 48개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JTS는 지난 해 10월, 라오스 남부 지역 참파삭(Champasak)주에서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지난 우기 때 홍수로 무너져 내린 작은 마을 학교를 신축해주기로 하였고, 현재 지방 교육청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창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 가는 길 뜨거운 햇볕이 심 없이 내리쬐는 수쿠마(Sukhouma), 메콩강변에 위치한 너른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지역이라, 피할 곳 없이 별은 온 몸으로 받아내다 보면 어느새 땀으로 범벅이 되어 버리는 그 곳에 바로 JTS가 학교를 짓고 있는 쿡농부아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려면 사무실이 있는 주도 팍세(Pakse)에서 송태우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송태우는 트럭 짐칸에 긴 의자를 놓고 앉아 갈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라 비포장 흙길을 달릴 때면 반대편으로 가는 차 혹은 앞차가 뿜어내는 붉은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됩니다. 한 번 마을을 다녀오면 온 몸과 머릿속에서 흙이 묻어 나옴과 옷이며 가방이며 운동화며 전부 흙갈색으로 물들어있는 통에 빨래하는데 애를



마을 가는 송태우 안에서

먹곤 하죠.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것 마냥 위아래 옆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며 2시간여를 달리면 수쿠마 군내 시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학교 공사에 아주 열심인 교육청 직원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마을까지 들어갑니다.

마을 어귀에서 걸어서 공사장으로 가노라면 텃마루에 앉아있던 마을 주민들이 활짝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흔치 않은 외국인의 등장에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렇게 “왔어요?”, “밥은 먹었어요?”하고 인사를 주고받을 때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건축현장에서 작업 중인 기술자들

콕농부아 마을학교 우기에 쉽 없이 퍼붓는 비로 메콩강이 범람하였고, 재해방지시설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 수쿠마 대부분의 마을이 홍수로 잠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 콕농부아 마을의 작은 학교도 무너져 내리고, 지붕만 겨우 남아 아이

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JTS에서 아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새 학교를 짓는데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말 공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마을학교라 한국에서 진행했더라면 끝나도 진작 끝났을 텐데, 이제야 바닥에 흙을 채우고 벽체공사를 시작하는데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들이 사용할 건물인 만큼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짓는다. 둘째, 현지 정부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진행한다. 학교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언제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만히 새겨보면 어렵



라오스 전통 상차림

이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디고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셍 라이라이 공사터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보고 나면 이장님 댁으로 향합니다. 수쿠마에서 사무실이 있

는 팍세까지 가는 송태우는 아침에만 있어서 마을에 올 때면 이장님 댁에서 잠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장님 댁으로 가는 길에 집집마다 텃마루에 앉아 있는 마을 사람들과 ‘자고 가요?’ ‘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와 같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긴 시간을 들여 이장님 댁에 도착하면 최고의 음식 솜씨를 가진 이장님 부인이 저녁식사를 준비해줍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찰쌀밥과 신선한 각종 채소를 양념장에 찍어 먹다 보면 “셍 라이라이(정말 맛있어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고기가 귀한 콕농부아 마을에서는 주로 개구리로 단백질 보충을 하는데, 지금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엔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개구리 뒷다리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꼬치에 끼워져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운 개구리를 뜯어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개구리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저를 보며 이 곳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걸 보면 사람의 적응력은 참 대단하지요?



라오스JTS 배혜정 활동가

폼간마이(또 만나요!) 라오어를 한 마디도 할 줄 몰라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웃음으로 때우는 것이 전부였던 첫 달, ‘외국인’에서 ‘한국에서 온 혜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두 달째,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 기둥을 올리고 벽돌을 쌓으며 학교가 지어지는 과정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 석 달째. 어느새 녀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일하는 관계자들과 서로 다른 의견들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다, 외롭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지만,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스르륵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라오어도 할 줄 모르고 차도 없어서 매번 오토바이로 태워다 줘야 하고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분명 수고스럽고 힘들 텐데도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배려해주는 파트너들이 있고, 매번 같은 대화라도 말을 건네주고 웃음을 함께 나누는 마을 주민들이 있고, 처음엔 온 몸을 배배 꼬며 숨기 바빴는데 이제는 활짝 웃으며 신나게 손을 흔들어 주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4개월 된 새내기 활동가는 이렇게 라오스에 천천히 스며들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받는 감동과 감사함, 넘치는 행복들을 한국에 계신 JTS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살짝 전해드립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폼간마이!



1+1 기부졸업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배워요!

-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101회 졸업식

지난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101회 졸업식은 여느 학교의 졸업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생태조경학과 2학년 김보리 학생의 제의로 "1+1 기부 졸업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졸업식에서는 제 3세계의 오지마을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짓기 기금마련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동아리담당 김모연 선생님, 봉사활동담당 김민숙 선생님, 체험담당 조계량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재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방과 후 활동으로 자체 제작한 천연비누 100장과, 버블숍 사장님께서 기부해주신 제작비누 100장, 한방삼푸 40개를 현장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JTS의 제3세계 오지마을 학교건축 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뜻 깊은 졸업식에서 의미 있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생님들과, 행사를 제안하고 동참한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달된 수익금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때에 배우지 못하고 있는 제 3세계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건축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해외활동가를 소개합니다.

해외파견을 손꼽아 기다리던 두 활동가가 드디어 해외사업장으로 파견됩니다.

오랫동안 JTS에서 자원 활동을 해 왔던 박영일 활동가와, JTS의 바리스타 박용대 활동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Q. 파견 전 국내에서 JTS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셨는데 어떠셨나요?

6개월간의 국내활동에서 활동가로서 가져야할 태도라거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신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를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해외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직업으로 커피 업계에 몸을 담아 왔습니다. 커피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맛있는 커피 한잔이 수확되기 위해 희생되는,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 동물, 자연 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희생시키는 것들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갚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순수한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의 균형 유지를 위해 행하는 것들을 보고 배워서 꿈을 실천하는 자신만의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대 활동가

Q. 해외생활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없나요?

걱정보다도 나보다 더 잘할 활동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채워서 오히려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해봤는데, 국내활동을 하는 동안 대표님 이하 소속봉사자들과 소통하면서 누가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부담감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라오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아직 현지의 사정을 문서로만 알고 있는 상태여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라오스 현지에도 분명 희생되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다보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노력하겠습니다.

Q. 해외파견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한 가지 명확히 하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이 목표인지 수단인지 헷갈려하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자신의 목표(꿈)가 무엇인지,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지 먼저 알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수단)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망설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해외파견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파견이라면 지금 당장 하세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러 라오스로 다녀오겠습니다.



박영일 활동가

Q. 어떤 계기로 JTS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토회 18기 백일출가를 회향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고 참 행복하게 살아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이렇다 할 상처도 없고, 대학에서 원하는 학문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회향 수련 할 때 도반들이 준 기도문인 '머리로 알기보다 마음으로 들어'라는 화두를 붙잡고 원래 계획했던 대학원 진학을 보류하고 JTS에서 몇 년간 상근활동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 언어를 살려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활동하고자 했으나, 지난 해 말 인도네시아 사업이 중지되면서 필리핀 민다나오 사업장에서 몇 년간 활동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Q. 해외사업장으로 파견가기 전 한국 JTS에서 활동하셨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본부에서 하는 일이 해외 활동가들의 뒤치다꺼리 같다고 느껴져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고 나도 빨리 해외에 나가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본부에서 보고와 회계 정리를 도와주는 해외사업장 담당자들이 있기에 해외에서 활동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장기간 출장을 가고 사무실을 비웠을 때 해외사업장 업무를 맡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부와 각 해외사업장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필리핀으로 가시는데, 사업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대학을 갓 졸업한 제가 해외사업장에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일을 하고 싶기 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 국제개발협력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처음부터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는 업무보다는 사무나 회계 등 해외사업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일은 먼저 배워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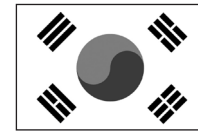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내일 출국하는데 각오가 어떠신가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파견 지역이 바뀌고 파견 날짜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 설레거나 들뜨는 마음은 덜하고 백일출가하기 전날처럼 약간 긴장됩니다. 필리핀 사업장에 가면 선배 활동가들이 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풍부하기에,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문경에서 행사생활 할 때처럼 흔쾌하게 '예'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돼지 저금통 전달식

1. 남양주 광동중학교 돼지저금통 모금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권준희 선생님의 진행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난 1년간 모은 돼지저금통 223개가 JTS에 도착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동전을 잔뜩 머금은 돼지 저금통의 수량이 많아서 계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금통으로 모금된 1,490,560원은 제 3세계의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India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운동장에 화려하게 그려진 인도 지도

1. 인도 공화국 기념일 행사

1월 26일 일요일은 인도의 공화국 기념일 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교사들과 아이들이 나와 운동장에 인도 국기를 그리고, 풍선을 불고, 깃발을 흔들며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경건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된 이번 행사로 아이들은 자신의 나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함께 분디아(인도의 행사 음식)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아이들

2. 수자타 아카데미 기말고사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의 일 년을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동게스와리 마을 14개 유치원, 수자타아카데미 본교, 아자드비가 분교에서 힌디, 수학, 영어, 체육, 미술 등의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평소엔 왓자지겔 장난 가득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네요.



지바카 병원 앞에서의 저체중아 조사

3. 저체중아 조사

지바카 병원엔 매년 상반기에 0~5세미만의 어린이들을 WTO기준에 맞춰 영양상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350명 가량 늘어나 조사 대상자가 약 1300명입니다. 작년에 동게스와리 마을은 심한 가뭄으로 벼농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마무리 하여 홀리(봄의 축제)전에 영양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현재 15개 마을 중 현재 8개 마을을 조사 하였는데, 다행히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작년보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만타부에서 수확한 무

1. 만타부 학교 텃밭 조성

마을 주민들과 JTS가 합심하여 학교부지에 텃밭을 만들어 무, 가지, 부추 등 JTS가 씨앗을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이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2차례의 모니터링을 통해 무, 가지 등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방문시마다 양치질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비타민을 나누어 주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침조례시 비타민을 먹는 선생님

2. 만타부 학교 비타민 지원

매일 먹는 것이라고는 고구마가 전부인 만타부 아이들에게 필수영양소의 부족은 당연한 일이겠죠? 신봉제약에서 후원해주신 멀티비타민을 아침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먹였더니, 전교생이 먹는데 총 3병이 필요하네요.



JTS에서 지원한 임시텐트

3. 마라뭇 학교재건 프로젝트

필리핀 JTS의 임희성, 오성근 활동가가 지난 올란드(하이엔) 태풍때 피해를 입은 필리핀 레이테섬 마라뭇 지역에서 '마라뭇 학교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총 56칸의 교실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건이 완료되기 전에 텐트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mbodia 캄보디아



강 건너 웅천 마을 학교 준공식

1. 소수 부족 5개 학교 준공식 -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

지난 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캄보디아 소수 부족들이 사는 땅아, 웅천, 인, 따농, 똘퐁롱 등 5개 마을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준공식에는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참석해서 잔치 분위기에서 흥겹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500여명의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 새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 속에 새 학용품들을 넣어서 새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마을과 아이들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아이들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 많은 후원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책가방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2. 교복, 책가방, 학용품, 놀이시설 지원

지난 1월 27일과 28일에 준공식을 한 5개 학교 500여 명의 아이들에게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 놀이시설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교만 덩그러니 있다고 교육이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데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과 놀이시설을 나누어주어서 아이들이 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게 되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Myanmar 미얀마



경기를 준비중인 주민들

1. 탄터빈 마을 운동회 진행

지난 1월 이틀간 탄터빈 면의 6개 마을이 열린 운동회 경기를 벌였습니다. 이날엔 짜웅공 타운쉽 전통 경기인 '나룻배 경주'를 포함한 11개 종목을 1,800여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해당 마을 운동회 상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주민들의 회의를 거친 자재 지원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현재 1등 마을은 관개 수로에 필요한 자재를, 2등 3등 마을은 보건소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마을 회의를 통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치솔 들고 찰칵!

2. 마을 보건 위생 프로젝트

짜웅공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을 중심으로 어린이 치아건강 관리 및 마을 안쓰레기 줍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탄터빈 학교 외 3개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후원을 통해 치약치솔 지급과 더불어 지속적인 보건, 위생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3. 사푸수 초등학교 건축 진행 중

현재 사푸수 초등학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이 합심해서 건축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푸수 학생들도 학교 완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푸수 초등학교 완공은 4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Laos 라오스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1. 곡농부아마을학교 공사진행

2013년 12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곡농부아 마을학교는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지고 우기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바닥을 높이기 위해 흙을 운반해와 쌓고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벽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학교도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겠지요. 라오스의 겨울도 어느새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땀땀 구슬땀을 흘려가며 공사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문태훈 활동가

2.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캄보디아 학교건축현장에서 1년간 활동했던 문태훈 활동가가 라오스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문태훈 활동가는 2013년 3월 캄보디아 사업장에 파견되어 2개 마을의 학교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1월 27일 준공식을 끝으로 소임을 마쳤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에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문태훈 활동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4월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이은숙, 권도영, 김정민, 박종화, 장준태,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신나경
필리핀	민다나오 : 송지훈, 임희성, 배명숙, 이재곤, 김희자, 박영일* 마라뭇 : 오성근, 원석환
캄보디아	박병수
미얀마	김성현, 이모아, 이대원, 권민성, 금시열
라오스	배혜정, 문태훈, 박용대*

2013년도 기금사용 결과보고

(2013. 01. 01. ~ 2013. 12. 31.)

[수입]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후원금	4,159,038	79.1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수입	257,857	5.0	캠페인 및 저금통포함
물품후원	1,181		한살림경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
사업비보조금	517,152	9.8	KOICA
이자수입	323,723	6.1	
수입합계	5,258,951	100	

[지출]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율(%)	비고
북한사업	4,655	0.3	
인도사업	149,544	9.1	등계스와리 지역 교육, 보건의료지원, 마을개발
필리핀사업	273,103	16.6	민다나오 다물록학교 건축 등
캄보디아사업	72,707	4.4	라타나끼리 5개마을 학교건축
미얀마사업	215,112	13.0	짜웅공지역 다리 복구사업 외
기타 해외사업	207,995	12.6	인도네시아(유치원, 관개수로 외) 스리랑카(관개수로 등 농업지원)
해외긴급구호사업	85,218	5.2	필리핀 하이엔 태풍피해 복구사업
국내사업	424,769	25.7	복지시설 두유지원 외
홍보사업	51,092	3.1	소식지제작 외
사업비 계	1,484,195	90	
관리운영비	165,753	10.0	사무실 임차료 및 발송비 외
지출 합계	1,649,948	100	
차기이월금	3,609,003		
총 계	5,258,951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 봉사에 함께 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 하세요

한국JTS 네이브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